
2019년 용진군의회 공무 국외출장 보고서

2019년 12월



용진군의회

I. 서론 - 공무 국외출장 개요

II. 본론 - 주요 연수내용

- ① 체코 일반현황
- ② 오스트리아 일반현황
- ③ 헝가리 일반현황
- ④ 공식 방문기관
 1. 프라하 수자원 연구소
 2. RHV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 정수연합
 3.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Lebenshilfe)
 4. 비엔나 시청
 5. 파펜나우 소각시설
 6. 노인복지시설(Olajág Ottonok)
- ⑤ 주요 현장시찰지
 1. 체코 세계문화유산지구
 2. 오스트리아 세계문화유산지구
 3. 헝가리 세계문화유산지구

III. 결론 - 국외출장 종합의견

I 서론 - 공무 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2. 출장목적

복지, 환경 및 관광 분야 선진국인 동유럽 3개국(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을 방문하여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제고 및 군민을 위한 복지정책,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광개발 정책 등을 비교 견학하고 투자 유치상황 등을 시찰함으로써 웅진군에 필요한 복지와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접목시켜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현지 분야별 시설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출장기간 : 2019. 11. 9(토) ~ 11.17(일) / 7박9일

4. 출장자 인적사항 : 10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비 고
웅진군의회	의 장	조 철 수	남	
“	부 의 장	방 지 현	여	
“	의 원	신 영 희	여	
“	의 원	김 택 선	남	
“	의 원	백 동 현	남	
“	의 원	홍 남 곤	남	
의회사무과	과 장	조 광 욱	남	
“	의사담당	황 준 철	남	
“	직 원	홍 덕 순	여	
“	직 원	이 수 경	여	

5. 주요 방문일정

일시	방문지역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 관계자 (직책)
11.11 (월)	프라하	프라하 수자원 연구소	1919년 설립된 환경부 소속 공공연구기관으로 수자원, 수생 생태계, 폐기물 관리 및 환경 오염 관련 과학연구소	Mr. Honza Zobek (연구소장)
11.12 (화)	할슈 타트	RHV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 하수처리장	할슈타트 호수, 오버트라운, 고사우 지역의 하수도 시스템 관리 및 폐수처리장 운영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활용 우수 공공기관	Mattin Elser (기관장)
	쾰츠 부르크	Lebenshilfe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	1967년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직업교육, 일자리지원, 가족지원, 의료서비스 등 종합적인 장애인 인권강화 복지단체	Mag. Stephan Lukas (기관장)
11.13 (수)	비엔나	비엔나 시청	비엔나 시청에서 관광 마케팅 관리, 여행지 홍보, 레저, 국제회의 컨벤션 서비스, 관광관련 도시관리 등 브리핑	Mag. Andrea Ortmayer (홍보담당관)
11.14 (목)	비엔나	파펜나우 소각시설	가정용폐기물, 산업폐기물,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친환경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특별폐기물 소각시설로 혐오시설의 재개발 현황 및 환경오염 방지 정책 비교시찰	Mr. Nicola Hermann (기관장)
11.15 (금)	부다 페스트	Olajág Ottonok (노인복지시설)	1,420명의 노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의료요양, 식이요법, 여가지원, 시니어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 및 복지정책 브리핑	Mr. Edit (대외협력과장)

II

본 론 - 주요 국외출장내용

1] 체코 일반 현황

- 공식국명 : 체코 공화국(The Czech Republic)
- 수 도 : 프라하(인구 121만명)
- 인 구 : 1,070만명(2019년 기준)
- 면 적 : 78,864km² (한반도의 약 1/3, 평지:산악=7:3)
- 주요언어 : 체코어(Czech), 독일어
- 종 교 : 로마 카톨릭(39%), 신교(2.5%), 후스파(1.2%)
- 인종구성 : 체코인(Czech 94%), 슬로바키아인(Slovak 3%), 폴란드인, 독일인 등
- 경제현황
 - 전 체 GDP : 2,441억 521만 5,927.4달러 세계46위(2018년 기준)
 - 1인당 GDP : 2만 2,973.11달러 세계36위(2018년 기준)



○ 연혁 개요

유럽 중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정식명칭은 체코공화국(Czech Republic)으로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이다. 수도 프라하는 동쪽으로 슬로바키아,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독일, 북쪽으로 폴란드와 접해있다.

체코 공화국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보헤미아 · 모라비아 지역과 슬레지엔 남서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18~92년 보헤미아 · 모라비아 · 슬로바키아와 더불어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을 이루었다가 1993년 1월 1일

분리, 독립했다. 의회민주제를 채택하여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의회에서 선출한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이원제이며, 행정구역은 7개 지방과 65구로 세분화되어 있다,

○ 지리 및 기후

이 나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정이 다른 2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0~1,600m의 산맥에 둘러싸인 서쪽의 보헤미아 분지와 동쪽의 모라비아 지방으로 구분된다. 고원지대와 분지에 자리 잡은 보헤미아 지방은 보헤미아의 숲이라 불리는 광대한 산림으로 덮여 있다. 보헤미아 중부를 남북으로 흐르는 블타바강(몰다우강) 연안에 수도 프라하가 위치한다.

대체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로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으며, 여름에도 습기가 적어서 생활하기 좋고, 겨울은 산악지대에 눈이 많이 쌓이고 추위가 심한 편이다.

○ 사회, 문화

체코 문화는 중세 이후 그리스도교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합스부르크 제국 내에서 독일화, 헝가리화에 저항하면서 독자적으로 형성되었다.

1948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요소가 포함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 인하여 문화활동이 정기를 잃었으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68년 개혁운동에 문학자 등 지식인이 적극참여하게 되었다.

국민성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와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신중하고 냉정하게 형성되었고 그리스도교의 생활습관이 지금도 남아 있다.

프라하의 국민박물관을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이 있으며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프라하에도 모마네스크기 이후의 건축양식이 많이 남아 있다.

○ 종 교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깊은 연관을 가져왔으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종교가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왔으며, 1989.11 민주화혁명 이후에 비로소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주변국가에 비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바, 전체 인구의 약 40% 내외만이 종교를 갖고 있는 상태이며, 전체인구의 종교 구성비는 로마카톨릭(39%), 신교(2.5%), 후스파(1.7%)로 이루어져 있다.

○ 교 육

취학 전 교육(3세~6세), 기초학교(6세~14세), 중등교육(14세~18세), 고등교육(18세~23세)으로 나누어진다. 취학 전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학부모가 교육비의 30%를 부담한다. 기초학교는 초등 6년과 초기 중등 3년의 9년제로, 6세부터 이후 9년 간의 기초학교 교육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한다. 기초학교 단계는 1~5학년까지의 전기 단계와 6~9학년까지의 후기 단계로 나뉜다. 국공립은 무상교육이며, 사립은 유상교육이다. 자유화가 된 1990년에 교육법이 수정되어 4년 이상 교육 기간의 김나지움(gymnasium)이 설립되었다. 김나지움에는 기초학교의 전기 단계 이수 후에 전학이 가능하다. 이는 1948년 당시의 제도가 부활된 것이다. 김나지움으로 전학하는 학생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기준 아동의 11%에 달한다.

○ 복 지

체코의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실시되어왔다. 직업과 계층에 따라 다른 종류의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각종 연금·건강보험·농민사회보장 등이 기본적인데, 종래에는 연금과 농민사회보장은 국고부담이고, 모든 노동자와 피고용자의 보험혜택과 진료 및 치료가 무료였으나, 1993년 1월부터는 모든 피보험자가 일정액의 보험출연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국민들의 보건·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이러한 체코의 사회보장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낳는 주 요인이 되고 유럽연합 가입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세제 및 사회복지 부문의 개혁(복지지원, 의료, 연금)을 추진 중이다.

○ 의 회

체코 의회(체코어: Parlament)는 체코의 입법부이다. 양원제로,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하원에 해당하는 대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원로원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의원은 원로원에 비해 우월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2007년 상주공관을 개설하고 있다. 양국은 1993년 3월 투자보장협정, 2001년 3월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액은 2015년 기준 50억 4000만 달러로 주종목은 철도, 원자로, 보일러,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이고, 약 1,553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대한항공이 체코 국영항공사인 체코항공의 대주주로 지분을 인수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② 오스트리아 일반 현황

- 공식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k of AUSTRIA)
- 수 도 : 빈(Wien)
- 인 구 : 약900만명 세계96위
- 면 적 : 약8,3870km² (한반도의0.38배)
- 주요언어 : 독일어
- 종 교 : 카톨릭(74%), 개신교(5%), 이슬람교(4%), 그리스정교, 유대교 등
- 종족구성 : 게르만족(90%), 동구계, 유대계 등
- 경제현황
 - 전 체 GDP : 약4,557억3,658만 716.2달러 세계27위(2018년 기준)
 - 1인당 GDP : 5만 1,512.91달러 세계12위
 - 한국-오스트리아 교역규모 : 한국과 오스트리아 상호 교역액 29억달러

○ 연혁 개요

국명이 ‘동쪽의 나라’ 라는 뜻의 ‘외스터라이히’에서 비롯된 오스트리아는 1278년 합스부르크 왕가의 속령이 되었으며 이후 합스부르크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강력한 절대주의 국가를 형성하여 중부 유럽을 지배하였다. 1867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건설하여 지금의 동부유럽 및 소련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함으로서 국토는 전쟁전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2차 세계 대전에도 패해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가 1955년 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으로 독립하였다.

현재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는 민주주의적 연방 공화국으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연방은 9개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산업은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서비스업이며, 알프스산 등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도 꾸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 지 리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앙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잇는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체코,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등의 8개의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국토의 3분의 2가 알프스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83,858km²로 서쪽 지역은 골짜기의 깊이가 450~750m, 해발 2,400~3,600m 높이의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 지역은 산의 높이가 해발 1,600~2,400m로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산맥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조그만 언덕들이 형성되어 있다. 제일 낮은 도나우 골짜기와 오스트리아 동쪽의 해발고도는 180~250m이다. 바다가 없는 육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는 동쪽 저지대에 모여 살고 있다.

○ 기 후

동부지역은 대륙성 기후, 서부지역은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6~8월)의 평균기온은 20~25°C이며 겨울(11~3월)의 평균기온은 -5°C정도이다. 10월에서 12월에 걸쳐 강수량이 많으며, 11월 하순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면 3월까지 많은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습기가 많아 상당히 추워 저지대에는 비가 자주오고, 고지대에는 눈이 내린다. 여름에는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며, 전체적으로 겨울을 제외하면 온난한 기후를 나타낸다.

○ 사회, 문화

오스트리아의 총인구는 9백만명으로 대부분이 게르만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등 동유럽계나 유대계 등도 일부 있다. 공용어는 독일어이지만 발음이 독특하여 표준 독일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영어도 폭넓게 통용되고 있다. 카톨릭은 오스트리아인 생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 방식과 검소한 생활양식을 보인다.

오스트리아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되어 독자적인 문화로 재창조하였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역사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음악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 하이든, 모짜르트,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해 내기도 했다.

○ 교 육

오스트리아 의무교육은 9년(6~15세)이며, 유치원 과정(3~6세)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2010년부터 취학 직전 1년에 대한

유치원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무상교육이 원칙인 관계로 의무 교육이 아닌 중등교육 고급과정(우리의 고등학교 해당) 이후에도 공립학교의 경우 학비가 면제된다.

○ 복 지

오스트리아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된 국가 중 하나로 2017년 기준 GDP의 21%에 달하는 7,596만 유로를 사회복지에 지출한다.

각종 연금, 가족수당, 실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의료 및 병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등 오스트리아의 사회복지시스템은 크게 ① 사회 보험(연금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② 자녀 수당 및 세금 감면, 육아 수당 등 소득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각종 혜택, ③ 기준 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최저 생계비 보장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및 피고용인의 의무가입과 부담 공유 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납부금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 정부는 21개의 보험공단 통합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 중이다.

○ 의 회

오스트리아 의회(독일어: Österreichisches Parlament)는 연방제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입법 기관을 의미한다. 183석의 하원인 국민 의회와 62석의 상원인 연방참의원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다.

9개 자치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각각의 주가 주의회에 의해 독자적으로 영위된다. 연방국가 이지만 실제로는 중앙 집권적인 색채가 짙어 정치적 결정은 중앙의 연방정부와 의회에 위임된다.

○ 한국과의 관계

19세기 말 조선시대 때 오지리(塙地利)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와 교류를 시작한 오스트리아는 당시 아시아에 세력을 뻗는 열강 중 하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한 오스트리아 여성이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맺었는데, 바로 이승만 초대대통령의 아내이자 초대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리 여사이다.

이후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주재 대사관을 설치하면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켰다. 오늘날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럽 진출에 주요한 파트너로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오스트리아 수출액은 2015년 기준 8억 8200만 달러로 주 종목은 반도체, 휴대전화, 승용차 등이고, 수입액은 11억 7500만달러로 주 종목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재생섬유 등이다. 현재 약 2,480명의 재외국민이 상주하고 있다.

③ 헝가리 일반 현황

- 공식국명 :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 
- 수 도 : 부다페스트
- 인 구 : 968만4,679명 세계98위(2019통계청) 
- 면 적 : 93,031km²(한반도의 약2/5)
- 주요언어 : 헝가리어
- 종 교 : 카톨릭(67.5%), 개신교(20%), 그리스정교, 유대교
- 종족구성 : 헝가리(마자르)인(96.6%), 독일인(1.6%), 슬로바키아인 등
- 경제현황
 - 전 체 GDP : 1,557억 306만 9,815.6달러 세계55위(2018년 한국은행 기준)
 - 1인당 GDP : 1만 5,938.84달러 세계45위(2019년 한국은행 기준)
 - 한국-헝가리 교역규모 : 2019년 양국수교 30년주년을 수교 당시보다 37배 증가한 27억 달러

○ 연혁 개요

헝가리는 중부유럽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다뉴브강이 동부와 서부로 나누고 있다. 비옥한 토양을 지닌 헝가리는 1241년 몽골제국의 침략 이후 1918년까지 대부분 외세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14세기에는 오스만투르크, 17세기 말부터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다. 20세기에는 제1,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많은 손실을 겪고 소련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9년 공산주의 정권이 성립되어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락하였다. 이후 헝가리혁명 등을 거치며 1989년 다당제와 대통령제 도입, 국호 변경의 새헌법을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지 리

헝가리는 유럽 중동부 내륙에 위치하며 면적은 9만3,031km²로 한반도의 2/5 크기이다. 동·서의 길이는 528km, 남·북의 길이는 320km 이다.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인 다뉴브강을 사이에 두고 국토가 양분되어 있으며, 헝가리에서 제일 긴 티서강이 헝가리 대평원을 둘로 나누고 있다. 전 국토의 2/3가 온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국에서 1,000여개의 온천이 있고, 수온이 30°C 이상이어서 근육 신경계 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유명하다. 전 국토의 3/4이 저평원 지대이며, 1/5은 400m 이하의 구릉지대, 5% 정도가 400m~1,000m정도의 산악지대이다.

○ 기 후

헝가리는 전반적으로 대륙성 기후이나 서안해양성 기후가 혼재하며, 남부 일부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다. 비교적 온화하고 사계절도

있으며, 북위 45.48° ~48.35° 에 위치하며 연평균 기온은 10.5℃ 이고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다. 중부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러시아 남부의 스텝 기후의 중첩 지대에 있다. 겨울 평균기온은 -2℃~12℃ 이고 여름 평균기온은 23℃~25℃ 이다.

○ 사회, 문화

전통 민속과 서방 기독교 문화를 양대 기저로 한 헝가리의 문화·예술 활동은 여타 서방 세계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프란츠 리스트, 벨라 버르토크, 졸탄 코다이 등 세계적인 음악가와 미하이 문카치, 촌토 발리 등 세계적인 미술가를 배출했으며, 높은 수준의 집시 음악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영화 부문에서도 헝가리 영화인들의 활약은 크다. 패러마운트 영화사 설립자인 아돌프 주커, 폭스영화사 설립자인 윌리엄 폭스(본명 윌리엄 프리드)는 헝가리계이며, 이들은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문화 매체로 만드는 데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여, 헝가리는 부다페스트 국립 오페라하우스, 팰리스 오브 아트, 빅신하즈 등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드문 발레 전용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다.

○ 교 육

1961년 교육체제 개선에 관한 교육 법령이 헝가리 교육제도의 기본임. 공산주의 시절 모든 교육은 국립이고 무료였으나, 1990년 이후 사립교육이 부활되었고, 국립대학은 1998년부터 입시정원 증가로 현재 70:30으로 장학생과 자비생이 있음. 자비생 등록금은 학과에

따라 학기당 500~3,500유로 정도(의대가 가장 높음)이다. 헝가리는 2004.5월 EU 가입 이후 EU의 대학교육개혁(BolognaProcess)에 보조를 맞추어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초등학교 1년부터 16세까지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 의 회

의원내각제 성격의 공화제로서 대의기관인 임기 4년의 국민회의가 최고기관으로 단원제이다. 국가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의회에서 선출하며, 주요 정당으로는 사회당, 청년민주연합, 민주포럼 등이 있다.

○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1988년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고 1989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동유럽 공산국가 중에서 정식 국교관계를 수립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헝가리를 방문하여 항공협정과 관광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헝가리 수출액은 2015년 기준 14억 8000만 달러로 주 종목은 평판디스플레이, 의약품, 승용차 등이고, 수입액은 5억 100만 달러로 주 종목은 원동기, 자동차부품, 곡류 등이다.

4 공식 방문기관

1. 프라하 수자원연구소(T.G Masaryk Water Research Institute)

- 주소 : Podbabska 2582/30, 160 00 Praha 6-Dejvice
- 방문일자 : 2019.11.11.(월) 09:00
- 기관개요 : 1919년 설립된 환경부 소속 공공연구기관으로 수자원 연구, 수생생태계, 폐기물 관리 및 환경오염 관련 공공연구기관

○ 주요 브리핑

체코공화국에서 최초의 과학연구소 중 하나로 설립되었고 근무 인원은 현재 230명이고 600명까지 근무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목적은 지반의 상태 및 수생 생태계와 환경의 연계, 환경 위협으로서의 각종 폐기물 관리의 변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물 보호, 홍수 예방 및 오염원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연구소의 본부는 프라하에 있으며 브루노, 오스트라바 등의 7개의 연구소 지점에서는 연구소의 전문가 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홍수나 가뭄을 대비한 댐 건설 등을 연구하고 있는데, 컴퓨터 작업으로는 부족한 댐을 만들기 전 모델을 만들어 여러 가지 상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질과 화학물질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한 수자원 보호를 IT기술과 연계하여 연구합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 식수부족 국가에 관정도 뚫어주고 여러 가지 지원과 봉사를 하는데 혹시 체코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 A. 국제적인 협력은 상급기관들이 하는 것으로 환경부 등 프로젝트가 생기면 우리 연구원들도 참여합니다.
- Q. 이곳 박사님들의 전공분야는 무엇이고, 외국 유학은 어느 곳에서 주로 하고 오셨습니까?
- A. 예를 들어 원장님은 IT전공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대부분 연구원이 기술분야, 환경보호, 수화학 관련 전공자 들입니다. 벨벳혁명 전에는 외국유학이 어려운 실정이었고, 요즘은 대학교간 교류가 활발하여 교환학생 등으로 외국 대학교에서 유학도 하고, 우리나라로 외국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 Q. 이곳에서 하는 연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연구하는 분야가 어떤 것인가요?

A.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오염과 보호분야입니다.

오염경로를 찾고 원인을 분석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수질개선과 정수화 처리를 통해 깨끗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연구도 많이 합니다. 최근 6년 동안 가뭄이 심한 편이었는데 가뭄뿐 만 아니라 2002년에는 큰 홍수가 발생하여 이곳 연구소의 2층까지 물에 잠기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 Q. 우리나라에도 가뭄과 홍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댐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A. 한국 상황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처럼 4계절은 있지만, 장마와 같은 단기간의 많은 강수량이 존재하지는 않아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체코도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미 1920년대부터 댐 개발 정책이 진행되어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체코는 지대 자체가 근방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수량이 적어 가뭄에 대한 피해가 더 큰 실정입니다.

- Q. 1년 강수량은 얼마나 되고, 이 곳 연구소의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A. 강수량은 원래 평균적으로 700ml정도 였는데 최근 6년 동안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가뭄이 길어져서 요즘은 평균이 낮아져 350ml~500ml 정도 됩니다. 연구소의 1년 예산규모는 220백만 브루나로 약 10백만 유로 정도입니다.

- Q. 이곳 연구기관에서 도출된 연구결과가 실제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A. 우리 연구소는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질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따른 대응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역 하수처리장(RHV Halstattersee)

- o 주소 : Anzenau 8, 4822 Bad Goisern am Hallstattersee
- o 방문일자 : 2019.11.12.(화) 10:00
- o 기관개요 : 할슈타트, 바트 고이전, 오버트라운, 고사우 지역의 하수도 시스템 관리 및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활용 우수 정수연합

○ 주요 브리핑

RHV는 1974년 설립된 할슈타트, 바트 고이전, 오버트라운, 고사우 등 인근 4개 마을이 공동출자하여 만든 생활하수처리 정화연합입니다.

주변 지역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지역으로 연간 관광객 150만명과 주민 2만2천가구의 생활폐수를 정화하여, 세계적인 관광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우리지역은 오스람 황제의 별장과 할슈타트 호수, 소금광산 등으로 1800년대 중엽부터 관광지로 활성화 되어 주변지역 경관 유지와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정화시설 개발이 필수였습니다. 생활하수가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호수

아래에 400km 정도의 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고 중간 마다 펌프 시설이 5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순 오폐수 정화만이 아니라, 하수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까지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첨단기술을 접목하였고, 대형 태양열 집열판과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는 정화시설에 필요한 전기의 5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 정화시설에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A. 시스템 절차는 각 가정의 폐수와 빗물 등의 가장 더러운 상태의

물을 하수관과 펌프시설의 1차 필터를 거쳐 집수장으로 모이게 합니다. 이를 침전 시키고 바이올로지 생태친화적인 방법으로 2차 정화합니다. 미생물 처리과정의 2차 정화과정을 거치면서 가라앉는 침전물이 바이오 침전물인데 이것을 독일어로 ‘슬라함’ 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 침전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침전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스를 만들어 내고, 그 가스를 전기로 만들어 내는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스터빈을 미국에서는 핵무기와 핵 잠수함에 사용하는데 우리는 친환경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터빈은 시간당 30kw를 생산하고, 2개의 터빈을 가동하고 있어 연간 약 25만kw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 천연 가스로 가동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으로 전체 시설사용 전기량의 50%를 자체생산하고 있습니다.

- Q. 하수도 관로의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집수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생활 하수가 호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호수 아래와 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호수의 수심이 깊은 곳은 125m 정도로 지하 깊이 파이프를 설치하였습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초창기에는 나무를 이용해서 흠을 파고 원목을 끼워 연결하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PVC로 플라스틱 중에 폴리에틸렌이고 관의 일부는 나가서 보실 때 일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곳 전체 지역의 크기는 약 300평방킬로미터이고 이중 주민들이 거주하는 구역은 6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각 가정으로

연결된 파이프들은 56개의 스테이션 펌프시설을 통해 집수정으로 모이게 됩니다. 파이프는 2중구조로 되어있어 위쪽으로는 상수도, 아래쪽은 하수도로 사용됩니다.

여러 곳에서 모이는 하수는 원심분리기를 통해 쓰레기 및 찌꺼기를 걸러내며, 걸러진 찌꺼기는 건조시켜 주변 농가에 비료로 쓰입니다. 그 후 활성슬러지법에 의한 미생물의 소화 공정에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사용되고, 이 과정에서 침전물에 초산을 투입해 박테리아가 분해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하수로 걸러지는데 걸리는 총 체류시간은 2~5시간이며 최대 5~6시간이 소요됩니다.

- Q. 하수처리시설은 원래 악취가 발생하여 기피시설로 인식되는데 이곳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A. 악취는 1차적으로 각 56개의 펌프시설에 필터로 걸러지고, 침전시키기 전에 2차 필터를 사용합니다. 모두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미생물처리에는 나트륨알루미나트라는 소재를 씁니다. 이 박테리아가 스스로 청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적인 전체처리 설비와 슬러지 안정화로 악취발생이 거의 없으며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또한 거의 없습니다.

- Q. 미생물 처리 소재는 자체생산인지?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요?

A. 나트륨알루미나트는 수입하여 사용하며, 1kg에 60센트 정도로 1년간 구입비용은 대략 2만유로 정도 됩니다.

- Q. 여기까지 들어오는 메인관로가 있고 각 가정에서 나가는 관로가 있는데 그 설치비용 부담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습니까?

A. 각 가정에서 큰 파이프로 연결할 때 최초 시설비는 3,500유로 이고, 폐수를 버리는 양만큼 요금을 측정해서 받습니다. 계량 수도처럼 폐수측정기가 있는데 그 비용이 1큐빅미터 배출할 때 4유로입니다.

- Q. 우리나라는 상수도 이용요금의 일정비율로 하수도요금이 책정되는데 이곳에서는 상수와 하수도 요금이 별도로 부과 된다는 것인가요?

A. 네. 따로따로 부과되는 것으로 1큐빅미터 기준으로 상수도는 1유로이고 하수도요금은 4유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Q. 이곳의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우리 시설의 연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250만 유로 정도 이며, 시의 보조금과 주민들의 사용요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복지시설(Lebenshilfe)

o 주소 : Nonntaler hauptstrabe 55,5020 salzburg

o 방문일자 : 2019.11.12.(화) 16:00

o 기관개요 : 1967년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가족지원, 의료 서비스 등 종합적인 장애인 인권강화 복지단체이며 장애인을 도와주는 비영리기관

○ 주요 브리핑

우리기관의 시작은 1967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때 인종청소라는 명분으로 장애인은 모두 학살되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제는 존재

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천적 장애인이나 산업발달에 따른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늘어나면서 1960년대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967년 장애인의 부모들이 각 가정에 편지를 보내 장애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정보공유 등을 논의해보자는 것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기관은 “정상의 보통사람과 똑같이, 그다음은 보통사람들 속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따로 학교를 만들고 따로 생활한다는 것은 약자라는 티를 내고 도와 달라고하는 어떤 면에서는 기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 유럽사회에서는 기피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돈을 벌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기관에는 생산공장 개념의 750명이 근무하는 작업장과 4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주거지, 2000명 정도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시설이 있고, 60명의 어린이가 있는 유치원 등 총 80여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 A.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같이 생활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부터 일반아이와 장애아이가 같이 생활하고, 학교에도 같이 가니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인식이나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그곳에 장애인들을 모아두고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할 걸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들과 똑같이 함께하는 교육, 주거,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을 한사람 한사람 개인으로 봐야합니다.
- 이곳 작업장에서도 개인별로 새로운 일을 배워서 작업을 해 보고, 다른 작업도 배워봐서 어느 작업을 할지 본인이 선택하게 합니다. 흥미를 갖고 좋아하는,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 Q. 장애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는지요?
- A. 장애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시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묻으며 안고 인사하고, 어릴 때부터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한 곳에서 교육을 시켜 자연스러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사전브리핑 때 설명 드린 80여개 시설들의 위치입니다. 지금계신 이곳은 행정사업부로 일종의 종합사무실인 것이고 다른 시설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한 곳에서

교육, 생활을 하게해서 다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야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편견 없이 생활하게 합니다.

- Q. 우리나라는 같은 학교라도 특수반이 있던가 장애인학교가 별도로 있는 구조인데, 일반아이들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본받을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애아이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돌봄이 필요할 텐데 선생님들이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인가요?

A. 학교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신청을 해서 특별교육 즉 장애인들을 다루는 교육을 추가로 전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이들 특별교육 전공자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들이 함께 있습니다.

- Q.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들 중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A. 시설들 80개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34.7밀리언 유로 정도이고 이 중 90%를 주정부에서 보조합니다. 나머지 10%는 국민의료보험에서 충당하고, 공장에서 만든 수익금이 조금 들어 오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일반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일반인들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니 기업에서의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급여의 90%는 주정부에서 기업에게 보조하고, 10%만 기업이 장애인에게 지출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채용으로 인해 급여의 90%라는 소득이 창출되니 채용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비

조금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장애인들도 일반인처럼 생산성에 따른 높은 급여를 받고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4. 비엔나 시청(Wiener Rathaus)

- 주소 : Friedrich-Schmidt-Platz 1, 1001 Wien
- 방문일자 : 2019.11.13.(수) 10:00
- 기관개요 : 1883년 세워진 비엔나 시청은 시민을 위해 시청광장을 개방하고 각종 축제를 개최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며 빈 시장과 빈 시의회가 집무를 수행하는 청사

○ 주요 브리핑

오스트리아의 연방 수도 빈은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정부로서, 빈 시의회는 주의회인 동시에 시의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96년 빈 지방선거법에 따라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5년 임기의 100명의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주의회 의원이 됩니다. 시의회 의장이 시장 즉 주지사를 겸하는 기관통합형 지방정부로서 시의원 중 12명으로 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시장을 선출합니다.

우리 도시는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유명한 음악가를 배출한 음악 도시로 알려져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고딕양식 건축물인 슈테판 성당과 쉐부른 궁전, 빈공원 등이 유명합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기구(OPEC)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ZE),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 시의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A. 시의회(Municipal Council)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된 5년 임기의 1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시의원은 동시에 주의회(Landtag) 구성원이 됩니다. 시의원 중 12명으로 구성된 시 집행위원회(City Councillors)가 시장을 선출합니다. 시장은 시 행정부와 시 집행위원장, 주지사를 겸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의원은 한 개의 분과위원회에 속하고 별도로 개최되는 주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적어도 한 달에 1번씩은 회의에 참석합니다.

- Q. 우리와는 운영방식이 서로 다른데 그럼 연방정부와 자치단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A.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고,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주민 수에 따라 9개의 주정부에 배분합니다. 빈의 경우 9개의 주정부 중 연방정부의 수도로서 특별주에 해당하며, 빈 시정부와 시의회가 복지, 사회, 환경, 수자원, 용지변경 등 직접적인 시민의 삶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 Q. 시의원의 근무여건과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A. 시의원 개인 의정활동에 대해 재정 및 인력 지원은 없고, 다만 회의 참석에 따른 손실 보상개념으로 고급공무원의 보상기준에 따라 연간 6천유로 정도의 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세금이나 별도의 연금 혜택은 없습니다. 정당별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소속의원을 지원하고 그 비용은 시정부에서 부담합니다.
- Q. 시 집행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A. 시의원 중 12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정책결정에 앞선 정책안 입안 및 사전자문역할을 합니다. 시정부의 70여개 부처를 7개 그룹으로 나누어 7명의 시 집행위원이 담당하며 시장과 비슷한 수준의 1만 5천유로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 Q. 시의 재정규모와 복지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A. 빈시의 예산은 약 180억 유로이고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5% 정도 수준입니다. 수혜금, 보장금 형태의 복지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책임지고, 시에서는 빈곤, 아동, 직업재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교사, 청소인력 등은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소득과 직업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 Q.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많아 관광객이 매우 많을텐데 세수입은

얼마나 되고 관광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 A. 우리시는 문화 유산이 많아 관광과 연계되어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광객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데, 이들이 숙박하는 호텔 등의 숙박업소로부터 1인당 1유로 정도의 도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500만 유로로 인프라 확충 등 관광 진흥에 사용하게 됩니다.

5. 파펜나우 소각시설(Simmeringer Haide waste incineration plant)

- 주소 : Magistrat der Stadt Wien, Rathaus, A-1082 Wien
- 방문일자 : 2019.11.14.(목) 10:00
- 기관개요 : 가정용폐기물, 산업폐기물,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면서
친환경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 주요 브리핑

우리 소각시설은 2008년에 오픈하여 한 달에 약 25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며 주정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이외의 쓰레기는 과거에는 땅에 묻었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어, 지금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3개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쓰레기 운반은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간 이루어지고, 소각 작업은 24시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이루어지며 작업인원은 2교대입니다. 소각 작업 중에는 항상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곳 위치에 소각시설이 들어온 이유는 도시의 외곽 쪽으로 하루

수백대의 차량이 쓰레기를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넓고, 고속도로 인근 지역으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 소각시설로 쓰레기가 운반되면 이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음식물쓰레기는 부토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 이곳에 오게 됩니다.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칫솔이나 면도기 등은 작게 분쇄해서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고 그것도 안 되는 것들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러한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엑스레이 검사와 대형자석 등을 통해 이물질 제거하고 소각에 들어갑니다. 1차 소각에서 남은 재를 모아 재소각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 1톤의 쓰레기에서

약 300kg의 찌꺼기가 남게 되고, 이를 지정된 땅속에 묻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찌꺼기로 도로에 까는 돌판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저희 오스트리아에서는 땅에 묻는 작업으로 마무리합니다.

- Q.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피해 감소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기본적으로는 쓰레기발생량 감소가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쓰레기 비용은 종합쓰레기만 비용을 내고, 캔이나 패트병 등은 별도 분리수거를 할 경우 비용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의 부피와 양을 줄여 쓰레기 비용 부담금은 줄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우리시설과 같은 환경시설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의 일반 허용수치 보다 10배 강화된 수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비엔나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질로 3~4위 정도인데, 미세먼지는 30~40mm정도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배출연기 1큐빅미터에 포함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1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각 시 발생하는 가스를 방에 가두고 물을 뿌려 수분과 함께 떨어지게하고, 석회를 뿌려 화학물질을 분리합니다. 이후 탄소필터로 다이옥신 등을 걸러내고, 녹스와 암모니아로 또 한번 필터작업을 합니다. 굴뚝 안에 측정기계가 있어 실시간으로 성분수치를 기록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 Q. 폐기물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까?

A. 소각로는 1,000도의 온도로 쓰레기들을 소각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회색 물관으로 찬물을 흘러 보내면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400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위쪽의 메가와트터빈을 돌리게 되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약 15.3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되어 우리 소각시설의 전기로 사용되고, 인근 주민 5만가구의 난방과 온수로 이용됩니다. 또한 음식쓰레기 등의 소각 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가정의 난방, 순간온수기, 조리 기구 등에 사용하는 가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우리시설은 돈을 벌기위한 영리시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적자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전기와 가스 등의 에너지 중 25%정도는 판매하여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노인복지 시설(Olajag Ottonok)

- 주소 : 1154 Budapest, Bankut u. 67-69
- 방문일자 : 2019.11.15.(금) 09:30
- 기관개요 : 1,420명의 노령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의료요양, 식이요법, 여가 지원, 시니어 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시설

○ 주요 브리핑

25년전에 개원한 우리시설은 헝가리어로 “햇빛이 비치는 양로원”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고 독립적인 은퇴자들의 거주공간입니다.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각종 노인질병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전문 지식과 보살핌으로 내 집과 같이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고품질 의료 및 종합 건강 관리 서비스는 활동적인 생활과 건강 유지, 지역사회 생활의 주민 참여 및 외부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관계와 우정을 키우는 것 외에도 보육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세대 간의 개방성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과 유치원과의 공동 활동, 여행 등은 두 세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평생학습이 제공됩니다. 시지스문트 대학교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시니어 아카데미는 지방 정부와의 좋은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설은 호텔처럼 운영되어 허가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입구에서 출입통제를 하고, 각 방마다 열쇠가 있어 출입시 열쇠를 로비에 맡기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 주요 질의 답변내용

- Q. 노인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까?

A. 모든 입소자분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종합검진기록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피검사, 혈압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개인별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일주일에 3번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약사와 간호사분들은 8시간 마다 교대하며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응급상황을 대비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 방의 벨을 눌러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고, 가끔 노인 분들이라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경우 예외 없이 구급차를 불러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합니다.

- Q. 그러면 생활하시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셔서 병원에 갈 경우 치료비는 개인부담입니까?

A. 헝가리는 의료관련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 100% 다 국가에서 의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수술비는 물론 구급차 이용비용까지 무료입니다.

- Q.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개인부담금액과 정부지원금액 비율이 어떻게 되고 저소득층, 중산층등 소득계층 별로 입소의 차이가 있는지, 금전에 문제로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A. 우리시설의 입소방식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방을 구입하여 평생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루에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원하는 기간 동안 지내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기존 자택을 팔고 이곳 숙소를 8밀리온 (약4,000만원)에 구입하여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금의 80% 정도로 사용료인 전기료 등 생활비를 지불합니다. 입소 후 3년 이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일정 비율 가족에게 환급 하고, 3년이 넘으면 돌려주는 게 없습니다. 환급하지 않는 돈은 사용하던 방을 리모델링하여 다른 분께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비용과 입소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 하루에 한국 돈으로 3만원 정도 내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0년대 개방이후에는 100%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부지원이 줄어들어 1년에 1명당 약 2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우리시설에 들어오기는 힘들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입소하는 편입니다.

우리시설의 입소인원은 135명이고, 입소대기 기간이 보통 8개월 정도 소요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 Q. 여기 간호사님과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것인가요?

A. 국가에서의 지원이 적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복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1년 40시간의 봉사시간을 법적으로 이수해야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Q. 노인의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몇 세 이상 입소가 가능한가요?

A. 70세 이상이 기본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입소를 결정합니다.

70세가 안되어도 건강이 나빠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면 입소가 가능하지만, 건강한 경우에는 입소가 어렵습니다. 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기준에 따라 입소가 결정됩니다.

- Q. 편의시설이나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우리시설은 모든 방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 2인 1실이지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방마다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전동침대, 가구 등이 비치되어 있고, 야외 테라스에서는 꽃이나 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도서관이 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식당, 조리실, 마사지실, 체육시설로는 체조실, 탁구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있고, 사우나 시설, 폐질환자를 위한 소금방, 종교활동을 위한 종교별로 별도의 예배당, 미용실, 이용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 특화된 요리로 배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용 요리가 있고, 정상적인 메뉴의 식사는 이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나 아프신 분들은 방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큰 홀에서는 각종 행사나 특별한 프로그램도 개최하고, 취미에 따라 개별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지역의의 문화축제나 각종 행사시에는 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나가 방문하거나, 지역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연계한 공동 활동, 대학교와의 연계한 시니어아카데미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이곳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데 이곳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노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A. 저소득층은 이러한 시설에 들어 올 수 없기에 각 구청에서 담당자가 매칭되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이나 빈민층의 노인분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일단 수용하고, 정부에서 차후에 정산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데 아직은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5 주요 현장 시찰지

1. 체코 세계문화유산 지구

○ 프라하성

프라하성은 9세기 말경 보리보이 공에 의해 세워졌으며, 진흙과 돌로 된 단순한 성벽으로 해자에 둘러싸여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여러 차례 증축되어 프라하 성은 유럽에서 가장 큰 중세의 성채 단지로 보헤미아 왕국, 이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 공화국의 정부 소재지가 되었다. 성 내부에는 성 비투스 대성당과 수녀원 이외에도, 12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200년 후 카를 4세의 주도 하에 고딕 양식으로 재건축된 왕궁의 유적이 있다.

15세기에 후스파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 지나간 후 1485년 블라디

슬라프 2세는 대규모 재건축 작업을 시작했다. 보헤미아가 합스부르크 제국에 합병된 이후 성은 또 다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특히 루돌프 2세 때는 그가 16세기 말 이 성을 주요 거처로 삼으면서 많은 부분이 개조되었다.

성은 르네상스 풍으로 재건축되었고, '왕실 정원', '스페인 홀', 사격장, 공놀이 경기장 등 여러 부분이 새로이 증축되었다. 30년 전쟁(1618~1648) 동안 입은 약탈의 피해로 프라하가 누리던 번영은 쇠퇴했으며 18세기 동안에도 곳곳에서 재건축 작업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프라하는 빈이 누리는 제국다운 호화로움을 따라가려 애쓰는 지방 도시가 되었을 뿐이었다.

20세기에 프라하의 성은 체코의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실제적인 표상으로 새로이 주목받게 되었는데, 특히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그랬다. 1989년의 '벨벳 혁명' 이후 프라하 성은 개조 작업을 거쳐 현재는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성 안에는 여러 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이 중에는 루돌프 2세가 수집한 체코와 유럽 예술품 컬렉션도 있다.

○ 황금소로

원래는 프라하성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되었으나, 루돌프 2세때인 16세기 후반 연금술사와 금은 세공사들이 살면서 황금소로라고 불리어졌다.

지금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프라하성의 일부로, 성의 입구를 지나면 좁은 골목길이 나오는데, 이 골목길이 황금소로이다.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몸을 구부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작은 집들이 늘어서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1990년대 이후 프라하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하면서 이 골목 역시 프라하를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찾는 명소가 되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기념품점이나 선물 상점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중세 때의 투구나 장신구 등을 전시하는 전시장도 있다.

그러나 이곳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성(城)》 《변신》의 작가 카프카(FranzKafka) 때문이다. 카프카는 1916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여동생이 집필활동을 위해 마련해 준 이 골목 22번지의 작은 집에서 매일 글을 쓰고, 밤이 되어서야 자신의 하숙집으로 돌아가곤 하였는데, 프라하성에서 모티프를 얻어 쓴 작품 《성》도 이때 완성한 것이다. 골목 위로 올라가면 장난감 박물관과 고딕양식으로 지은 높이 100m의 성비투스 대성당이 있다.

○ 바츨라프 광장

블타바 강 왼쪽 지구로 중세 시대 카를 4세에 의해 조성된 신시가지에 속한다. 원래 마(馬) 시장이 섰던 곳이며 광장 가운데 사형대가 세워졌던 역사도 있다. 너비 60m, 길이 750m의 광장은 엄밀히 말하면 광장이라기보다 드넓은 대로에 가깝다. 현재는 중앙 녹지를 경계로 차도와 인도가 나뉘어 있다. 광장 이름은 체코의 최초 왕조인 프르세미슬 왕가의 왕 바츨라프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사후에 성인으로 추대된 체코 기독교의 상징적 인물이다. 광장 동남단에 성 바츨라프의 기마상이 성인 4명의 수호를 받으며 서 있다.

무엇보다 바츨라프 광장은 체코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무대이며 여러 차례 프라하 시민의 집회가 열린 민주화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191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독립 선언이 이 광장에서 선포되었고 1968년에는 '프라하의 봄'이라 일컫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 광장 일대가 모여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프라하의 봄은 소련의 군사 개입으로 큰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1989년에 같은 장소에서 몇 십만의 시민들이 광장을 메우며 공산 정권의 몰락을 이끌어 낸 벨벳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광장에는 자유화 운동 당시 소련의 무력 개입에 항거하는 뜻으로 목숨을 끊은 안 팔라흐와 안 자이츠 두 젊은이를 기리는 기념비가 있다.

오늘날에는 호텔과 백화점, 부티크 등이 늘어서 있는 프라하 최고의 번화가로 현지인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 천문시계

구 시청사 건물 중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천문 시계 앞에는, 매시 정각(09:00~21:00)에 시계가 울리는 것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인이 모여든다. 시계가 정각을 알리면 오른쪽에 매달린 해골이 줄을 잡아 당기면서 반대편 손으로 잡고 있는 모래시계를 뒤집는 것과 동시에, 두 개의 문이 열리면서 각각 6명씩 12사도들이 줄줄이 지나가고 황금 닭이 한 번 울고 나면 끝나는데, 이 과정을 다 합쳐도 채 1분이 안 된다. 천문 시계는 1490년 하누슈(Hanus)라는 이름의 시계공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그 시계공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시계를 만들 것을 걱정하여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한다.

그 뒤 시계공은 복수하기 위해 시계에 손을 집어넣어 시계를 멈추게 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이후로 시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되었고 지금은 전동 장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 하벨 전통시장

프라하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곳에 위치한 하벨 시장은 기념품과 꽃, 과일, 채소 등이 가득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노천 시장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천 시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평일에는 채소와 과일을 파는 시장이 되고,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야외 선물 가게라고 보면 된다. 박수를 치면 웃음소리를 내며 발버둥을 치는 마녀 인형, 마리오네트와 글라스 등 각종 기념품은 하벨 시장의 명물이기도 하다.

○ 프라하 트램-노면전차

프라하에서 트램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프라하에서는 트램을 타는 것이 관광 상품이 될 정도로 명물이기도 하다. 각 트램 정류장마다 해당 번호의 노선이 트램의 진행 방향대로 잘 나와 있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확인하고 트램 노선만 정확히 안다면 트램을 이용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트램은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8분 간격, 그 외의 시간에는 10분 간격, 주말에는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밤 12시 이후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는 51~59번까지 30분 간격으로 심야 트램이 운행된다.

○ 체스키크룸로프 성

프라하 성에 이어서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인 체스키크룸로프 성은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고딕 양식부터 시작하여 수 차례 새로운 건축 양식들이 중축되면서 현재는 여러 양식이 복합된 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1250년 이 마을의 영주들이 고딕 양식의 성을 세웠는데 그중 가장 힘 있는 비트코프치(Vitkovci) 가문을 대표로 내세워 비트코프치가의 문장이었던 5송이의 장미가 이 성의 상징적 의미가 됐다. 1302년 비트코프치 가문의 후손이 없자 친척이었던 로젠베르크(Rosenberg) 가문이 뒤를 이어 체스키크룸로프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면서 고딕 양식이었던 성을 르네상스 양식으로 증축했다.

16세기에 들어와 체스키크룸로프 성의 상징인 흐라덱(Hrádek)이 세워지게 되고 17세기 초 합스부르크가의 황제였던 루돌프 2세(Rudolf II)가 성을 매입하였는데 30년 종교 전쟁이 끝난 후 합스부르크가의 후손인 페르디난드 2세(Ferdinand II)가 17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에겐베르크(Eggenberg) 가문에게 이 성을 선물해 주면서 에겐베르크 가문이 바로크 양식의 성을 추가로 증축했다.

하지만 에겐베르크 가문도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자 얼마 못 간 18세기 초 또 다른 가문인 슈바르젠베르크(Schwarzenberg) 가문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후손들이 지금의 모습을 갖춘 체스키크룸로프 성을 마지막으로 개조하였다.

○ 블타바강 카를교

카를4세가 블타바강에 놓은 너비 10m 길이 520m에 이르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다리이다.

다리 양옆에 15개씩 17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300년에 걸쳐 만들어진 30개의 성인상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체코의 유명한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오른쪽 중앙에 위치한 성 요한 네포무크 조각상이 가장 유명하며, 조각상의 밑단 순교장면의

부조를 만지면 프라하로 다시 올 수 있다는 전설과 개 부조를 만지면 비밀을 영원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만져 반질반질하다.



2. 오스트리아 세계문화유산 지구

○ 짤츠감머굿

오버외스터라이히 · 슈타이어마르크 · 짤츠부르크 주들의 일부 지역들로 구성되었다. 이 지방은 주로 트라운 강 유역으로 이루어지며, 호수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아터 · 트라운 · 몬트 · 볼프강(아버) · 할슈테터 호 등 30개가 넘는 호수들이 있어서 종종 오스트리아의 '호수지방'으로 불린다. 이 지방의 가장 높은 지대인 다흐슈타인 산군은 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높이는 2,995m에 달한다.

이 산군은 토테스 산군 및 바르세네크와 더불어 석회암 단층지괴들이다. '소금갱 영지'를 뜻하는 이 지역의 지명은 철기시대부터 채광되어온 할슈타트 · 바트이슐 · 바트아우세의 광염매장지들에서 유래했다. 수분증발을 위한 탈수공장들이 이 세 곳의 분고장과 에벤제 및 그문텐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지방의 목재는 건물건축 · 제지 · 섬유제조에 중요하게 쓰인다. 소 사육, 낙농업, 포르데러고자우 호수의 수력발전, 시멘트 생산, 그문텐의 도자기 제조 역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주요수입원은 관광산업인데 이것은 그문텐 · 바트이슐 · 장크트볼프강 · 바트아우세 등의 휴양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 유명해져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다.

○ 미라벨 정원

미라벨 궁전 앞에 있는 미라벨 정원은 짤츠부르크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이다. 과거에는 궁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현재는 일반인에게도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 정원은

바로크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며, 분수와 연못을 비롯하여 대리석 조각과 꽃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가 되어 더욱 유명해졌으며, 모차르트의 콘서트를 비롯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유명인들과 관계된 행사들이 펼쳐진다. 또한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선사하는 식당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 모차르트 생가

게트라이데 거리 9번지는 1756년 1월 27일 천재적인 음악 신동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노란색 외관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게트라이데 거리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곳으로, 현재는 모차르트의 생가 박물관으로 모차르트가 어릴 적 사용했던 악기와 악보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각종 소품들과 어릴 적 생활했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건물 안에는 모차르트에 관련된 기념품 숍과 카페도 자리하고 있다.

○ 게트라이데 거리

짚츠부르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게트라이트 가세(Getreide Strasse)는 짚츠부르크의 유명 쇼핑거리이다. 거리에 있는 예쁜 간판들을 보기만 해도 그 가게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흥미를 이끌어내고, 건물 앞에 있는 노천카페에서는 커피를 즐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다. 짚츠부르크의 전통 의상과 모자를 판매하는 가게도 있으며, 선물용으로는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모차르트 초콜릿이 인기가 많다.

○ 호엔잘츠부르크성

‘높은 잘츠부르크’ 라는 뜻의 호엔잘츠부르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발 120m의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어디에서든 호엔잘츠부르크 성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츠부르크를 상징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1077년 게브하르트 대주교가 교황 서임권 투쟁에서 독일 남부의 황제파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지은 요새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성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성까지는 푸니쿨라라는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왕복으로 운행 중이기 때문에 언덕 위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지만, 논베르크 수녀원에 가려면 도보로 내려오는 것을 추천한다. 티켓은 푸니쿨라가 포함된 티켓과 성만 입장할 수 있는 티켓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푸니쿨라 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푸니쿨라에서 내리면 바로 잘츠부르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잘츠부르크의 모습은 꼭 봐야 할 풍경에 속한다.

○ 성 슈테판 대성당

오스트리아 최대의 고딕양식 건물로서, 1147년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설을 시작하였고, 1258년 빈을 휩쓸었던 대화재로 전소되었다가 1263년 보헤미아 왕에 의해 재건되었다. 1359년에 합스부르크 왕가가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헐어버리고 고딕 양식으로 개축하였고, 1683년에는 터키군, 1945년에는 독일군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복구를 시작하여 대부분 옛 모습을 찾았다. 성당 이름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된 성인슈테판에서 딴 것이다. 옛 건물이 가득 들어찬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있으며

‘빈의 혼(魂)’ 이라고 부를 정도로 빈의 상징으로 꼽힌다.

공사기간이 65년이나 걸렸으며 건물의 길이가 107m, 천정 높이가 39m에 이르는 거대한 사원이다. 높이 137m에 달하는 첨탑과 25만 개의 청색과 금색 벽돌로 만든 화려한 모자이크 지붕이 유명하며, 보헤미아 왕이 세웠던 '거인의 문'과 '이교도의 탑'도 남아 있다.

건물 내부에는 16세기의 조각가 안톤 필그람이 만든 석조 부조의 설교대와 15세기 말에 만들어진 프리드리히 3세의 대리석 석관이 있다. 그밖에 마리아와 예수상이 있고, 스테인드글라스 장식이 매우 아름답다. 지하에는 1450년에 만든 지하유골 안치소 카타콤이 있는데, 페스트로 죽은 사람의 유골 약 2,000구와 합스부르크 왕가 황제들의 유해 가운데 심장 등의 내장을 담은 항아리 및 백골이 쌓여 있다. 모차르트의 결혼식(1782)과 장례식(1791)이 치러진 곳이며, 빈 시민들은 매년 12월 31일 슈테판대성당 광장에 모여 새해를 맞는다.

○ 셸부른 궁전

셸부른 궁전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름 주거지였다. '합스 부르크 옐로'로 알려진 독특한 색채의 건물은 내부에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소용돌이치는 로코코 양식이 주를 이루며 황금으로 된 장식, 크리스털 샹들리에, 커다란 거울 등을 볼 수 있다. 셸부른에는 1,441개라는 엄청난 개수의 방이 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와 그녀의 남편인 황제 프란츠 1세는 셸부른에서 여름을 보냈으며, 그들이 통치하던 시절 여섯 살 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궁전에 초대받아 여제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는 쉘부른에서 1830년 출생했으며 여든여섯의 나이로 이곳에서 죽게 된다. 이 궁전은 프란츠 요제프의 아내이며 애칭으로 '시시'라 불리기도 했던 엘리자 베트 황후와의 인연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쉘부른을 매우 사랑하여 결혼한 이후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지냈다.

합스부르크 가의 이 궁전은 17세기에는 사냥 별장이었으며, 터키가 빈을 점령했을 때 파괴되었던 자리에 세워졌다. '쉘부른'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샘물을 의미하는데, 이곳에 왕실의 식수를 제공해주던 천연 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쉘부른 궁전은 '글로리에테'라는 이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웅장한 신고전주의풍 아치들, 모조 로마 유적, 화려한 분수, 인상적인 종려나무 온실을 완벽하게 갖춘 눈부시게 화려한 대정원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궁전에는 또한 프란츠 황제가 1750년대에 조성한 작은 동물원의 후손인 동물원도 있다. 이 동물원은 여전히 원래의 자리에 남아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원이다.

1918년 카를 1세 황제가 왕위에서 물러나 오스트리아는 공화국이 되었다. 그는 퇴임 연설을 쉘부른에서 거행했고, 궁전은 공화국의 소유가 되었다.

쉘부른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를 입어 1950년대에 복구되었다. 오늘날 이 궁전은 마땅히 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중 하나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3. 헝가리 세계문화유산 지구

○ 부다 왕궁

13세기 몽고 침입 이후에 에스테르곰에서 이곳으로 피난 온 벨라 4세는 방어를 위해 높이 솟은 부다의 언덕에 최초로 왕궁을 지었다.

이후 마차시 왕 시절에 모든 건물들은 르네상스 스타일로 변형되었고, 궁전은 중부 유럽의 문화, 예술,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17세기에는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에 의해 현재의 크기로 개축되었고, 지금은 역사박물관과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등으로 쓰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현장을 복구하면서 수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는데, 이 유물들은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노동운동박물관에는 헝가리 투쟁운동과 사회주의 하의 헝가리 모습을 담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국립미술관에는 11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 성 이슈트반 대성당

기독교를 헝가리에 전파한 위업으로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대된 이슈트반 성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으로, 50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내부 기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기둥이 지탱하는 아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교회의 탑은 96m로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으며 이 숫자는 헝가리의 건국된 해인 896년의 96을 의미한다. 도나우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위해 이보다 높이 지을 수 없게 규제되어 있다. 성당의 정문 위에는 오른손에 홀을, 왼손에 구슬을 들고 있는 성이슈트반의 동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제단의 뒤쪽에 가면 성이슈트반의 오른손이 봉헌된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이 있다.

○ 영웅광장

영웅 광장(Hősöktere)은 벨바로시에서 부다페스트의 문화 거리인

안드라시 거리를 지나 그 끝에 있는 것으로, 헝가리 1천 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징물이다.

영웅 광장 가장 자리엔 열주(列柱)로 이뤄진 구조물이 반원형으로 만들어져 왼쪽에 7명, 오른쪽에 7명 등 모두 14명의 청동 입상이 서 있다. 열주가 시작되는 왼쪽 열주의 위에는 노동과 재산, 전쟁의 상징물이, 오른쪽 열주가 끝나는 윗부분엔 평화,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상이 있다. 이 열주 기념물은 바로 뒤편에 있는 시민 공원인 바로시리게트에 있는데 영웅 광장은 그 입구처럼 보이게 설계 되었다.

영웅 광장 가운데에는 36m 높이의 밀레니엄 기념탑(Millenniumi Emlék)이 서있고 꼭대기엔 날개 달린 천사장 가브리엘의 상이 서 있다.

가브리엘 상은 사람의 두 배 크기로 조각가 죄르지 질러(György Zala)의 작품으로 가브리엘 상이 안치된 것은 하느님이 보우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자르인들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질러는 이 작품으로 1900년에 열린 파리 세계엑스포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오른손에 헝가리의 왕관을, 왼손엔 그리스도의 사도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이스트반왕이 헝가리를 개종시켜 성모 마리아에게 바쳤다는 의미이다. 원주의 맨 아래 부분에는 헝가리 민족을 트랜실바니아로 인도했던 일곱 부족의 부족장들이 동상으로 서 있다. 그 앞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무명용사 기념제단이 있다. 바닥에 깔린 동판에는 '마자르인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그들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며'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영웅 광장은 밀레니엄인 1896년 공사가 시작되어 1901년 헌정되

었지만 실제 공사는 1929년에야 끝났다. 명칭도 본래는 '밀레니엄 기념광장'이었으나 1932년 '영웅 광장'으로 변경되었다. 물론 이곳도 제2차 세계대전 중 피해를 입었으나 복구되었다. 영웅 광장의 왼쪽에는 예술사 박물관, 오른쪽에는 미술사 박물관이 영웅 광장을 마주보며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 이번 공무국외출장 일정은 비행시간을 제외하고 7일 정도의 기간 동안 3개국 9개 도시를 방문하고, 공식기관방문을 6개소로 준비하다 보니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먼저 교통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유럽 도시들은 인구가 적지만 그에 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었다. 지하철, 트램, 버스 등을 활용하여 도심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교통수단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여 저렴한 교통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었다.

또한 대도심의 문화유적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버스 유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내권 주요 관광지 진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유적지 중심지역은 차량이 적고, 사람들이 중심인 거리가 조성되어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지역에서도 공영버스와 행복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이용율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관광객은 근해도서는 개인차량으로 도선하거나, 렌트카, 숙소차량, 관광버스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객이 없는 문제도 있겠지만 공영버스를 확충하여 배차간격을 줄이고 이용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면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이 향상되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다. 쾌적한 청정도서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수기의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주요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일반 관광버스 하차지점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정책도 벤치마킹할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연안부두여객터미널의 경우 우리지역 관광지로 가는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현실이다. 인천광역시와 중구, 관련 정부부처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대중교통 편의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난 5월 29일에 헝가리 다뉴브강(독일어 도나우강)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우리나라 관광객 33명, 승무원 2명 중 27명(한국인 25명, 헝가리인 2명)이 사망하고 1명(한국인)이 실종된 큰 재난이었다.

이번 국외출장을 준비하면서도 이 사건의 영향으로 기관방문 섭외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다뉴브강은 부다페스트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하나로 독일 남부지역에서 흑해로 흘러가는 총 길이 약 2860km의 강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을 지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다.

사고는 폭우로 물살이 강하고, 바람도 많이 부는 날씨에 강행한 야경투어 중 크루즈선과의 충돌로 전복, 침몰된 것으로 사고 유람선의 경우 70년 된 노후선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30년이 넘는 노후 선박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상이 나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관광을 진행한 안일함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

수단인 우리지역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객선과 어선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점검·지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가졌다.

- 팔츠부르크의 장애인시설 Lebenshilfe을 방문하고 우리 관내 장봉도의 장봉혜림원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장봉혜림원은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산하 소사성육원 육아시설로 1957년 시작되어 1985년 장봉혜림원 복지관을 준공하면서 시작되었다. 지적장애인 시설인 장봉혜림원과 중증장애인 시설인 장봉혜림요양원이 있고 현재 105명의 장애인과 60여명의 직원들의 생활공동체로 지역사회의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의 기초서비스와 보건의료,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직업재활훈련으로 아쿠아젤리향초, 천연수제비누, 돼지감자차, 무말랭이차, 소이왁스 캔들 등의 생산과 친환경 영농사업, 직업생활 훈련, 인성적응훈련, 취업박람회 견학과 정보화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천시내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을 설치하여 주거와 활동의 기반을 이전하고 있다. 6세대의 그룹홈에서 24명이 생활하고 있고, 체험홈 5세대가 운영되어 지역사회 생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결혼을 통한 완전한 독립생활을 하기도 한다.

팔츠부르크의 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집단시설로 일반인들과 분리되어 생활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그룹홈, 체험홈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오스트리아의 장애인에 대한 시민 관점이 우리에게도 많이

전파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하기를 바르게 되었다.

- RHV 할슈타트 정수연합과 파펜나우 소각시설을 방문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개발이었다.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하여 가스 터빈을 통한 전기를 생산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로 활용하고, 소각시설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 등은 우리도 도입해야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관내 공공하수처리장과 소각장에서도 바이오 가스와 열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가가호호 주택까지 확대하여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다페스트의 노인복지시설은 퇴직노인들의 고급 요양원 개념이었다. 고품격 의료서비스와 의식주를 서비스하는 곳으로 치매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많은 곳이었다.

우리나라도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정책으로 추정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를 차지할 정도이다.

우리 관내에도 백령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돌봄서비스,

인지기능 강화 치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서 현지방문을 통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의 분들이 백령으로 가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치매 환자 대부분이 노인임을 감안한다면 지역 내 민간복지단체나 인근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환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도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다페스트의 노인복지시설은 일반주민들의 거주 건물과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겨, 위화감이 없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규모가 작은 시설임에도 사우나, 운동시설, 재활 마사지실, 수공예 수업 등의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싼 실버타운과 비슷해 보이는데, 대부분의 운영자금이 연금 등의 복지정책에서 충당된다는 점이 놀라웠다.

우리 관내에서 병원이 가까운 백령, 영흥 지역에 이러한 요양시설을 조성 한다면 바다가 보이는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의 안락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이며, 자체 재원으로의 공공요양시설이 어렵다면, 외자유치를 통한 상업시설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럽의 복지는 흔히들 북유럽을 손꼽지만 이번에 방문한 동유럽 역시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었다. 특히 연금, 의료보험, 무상교육 등 많은 복지정책과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공산주의를 경험한 동유럽의 국가적 정책으로 인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이러한 복지 수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소득세율이 높아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다. 모든 국민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있어, ‘국가는 부유하지만 개인은 가난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만족하고 있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우리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은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복지국가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로 원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소득 재분배 원칙을 지켜가야지 선심성, 일회성 복지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주요방문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었다. 선조들의 문화유적자원이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 동안 잘 보존된 이유이며,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들 동유럽 지역에서는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고 있었다.

우리 관내에서도 백령·대청·소청의 국가지질공원을 비롯한 각종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보존과 개발의 공존을 위해 향후 백년을 염두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모차르트는 천재음악가의 생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 등 다양한 소재지를 관광 자원화하고, 각종 건축물과 조각, 유적들을 이미지화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 국가관과 정책성 확립을 위한 국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 활용하고 있었다.

외국의 지배를 받은 굴욕적인 역사와 유적들도 원형대로 유지하며 국민들에게 기억하고 추모의 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커다란 모티브로 활용하고 있었다.

프라하성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초라하고 허름한 건축물이고, 작은 골목길에 불과한 곳을 ‘황금소로’ 라는 스토리텔링으로 매년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관광명소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관광 상품화가 대단했다. 우리도 연평안보체험과 덕적 3.1절 기념비, 연평 임경업장군, 대청 원나라황제 순제처럼 역사적 인물과 자원, 문화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로 관광 상품화를 통한 관광유치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이번 국외출장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람과 사회,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러한 전문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할 것이다.